

진로·진학 올바른 정보 제공

전북교육청 ‘2025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전주·익산 등서 5차례 운영
교육전문가 대거 참여… 고입·진로·대입·학습 등 4개 분야 주제 다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진로·진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2025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 김진석(소명여자고)·윤운구(한양대사범대부속고)·정제원(송의여자고)·김용진(동국대사범대부속여자고) 등 EBS 입시 대표강사, 전북 대입 진학지도지원단 및 고입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토크콘서트는 전문가 특강과 주제별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학습(학력) 등 4개 분야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각 분야에는 3명의 패널이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특히 지역에 따른 관심 사항과 학부모 궁금증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전주·군산·익산·정읍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완료했다.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는 △8월 30일 전주(전주대 스타센터) △9월 20일 익산(익광대 프라임관) △10월 25일 군산(군산간호대 D2 대강의실) △11월 8일 정읍(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

△11월 15일 전주(전주대 스타센터) 등 4개 지역에서 5차례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알림존을 클릭해 신청하거나, 다음 링크(<https://forms.gle/nit597zGCEEL3pP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4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와 전주대는 24일 서울 호원아트홀에서 글로벌 숏트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의 에이전시인 GBSM(글로벌본스타매니지먼트)과 K-컬처의 세계화를 위한 혁신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오디션·K트레이닝센터 구축’

호원대-전주대, 글로벌컬30 본지정 위한 GBSM과 협약

호원대와 전주대는 24일 서울 호원아트홀에서 글로벌 숏트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의 에이전시인 GBSM(글로벌본스타매니지먼트)과 K-컬처의 세계화를 위한 혁신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호원대 정의봉 부총장, 최부현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용신 GBSM대표이사과 임직원 등이 참석, 전북 지역을 K-컬처의 글로벌 허브 및 K-컬처 글로벌 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협약에 담았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컬30 예비지정에 선정된 호원대와 전주대는 연합대학으로 8월 11일 본지정 실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대학이 제안한 'K-Life STARdium' 모델, 즉 캠퍼스 내 Food, Wellness, Contents, Tech 실습과 글로벌 확장성을 갖춘 K-라이프 체험형 실습 공간 구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호원대, 전주대 그리고 GBSM은 TikTok 글로벌 K-오디션으로 틱톡을 활용해 K-컬처 인재 발굴 및 숏폼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K-컬처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강희성 총장은 “글로벌컬대학 선정은 전북이 자랑하는 전통문화유산과 K-포프를 한 자리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명실상부 세계 K-컬처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용신 GBSM 대표이사는 “전세계 10억 명 이상이 활동하는 틱톡과 긴밀히 협력해 경쟁력 있는 K-콘텐츠 및 인재양성과 관련 산업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초갯’ 체험으로 몽골 청소년에 전통문화 전파

전주비전대, 단기 어학연수 참가 몽골 학생에 조선의 멋 선사

전주비전대학교 국제교류원 비전한국어센터는 여름방학 기간 중 몽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어학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기 연수는 2주 코스로 총 3차례 진행되며, 약 130여 명의 몽골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한국 전통 모자인 '갯'과 갯끈(입형) 만들기 체험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1초갯'은 투이엘모자 박물관이 개발한 접이식 전통 갯으로,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상품이다. 참가 학생들은 '1초갯'을 직접 착용해 보고, 영형 색색의 구슬과 실로 자신만의 갯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조선의 멋과 철학을 체험했다. 몽골 달란자르가드시에서 온 바트암 갈람(15세) 학생은 “드라마에서 본 조선시대 양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직접 만든 갯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신기했다”며 “몽골에 돌아가서도 갯을 보면 한국이 그리워질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체험을 진행한 투이엘모자박물관 조현중 대표는 “몽골 청소년들이 갯의 의미를 경험하고, 정성껏 갯끈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몽골 간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교류원장인 이효숙 교수는 “방학 중 진행되는 해외 단기 연수는 문화 교류를 통한 유학생 유치 기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갯 체험처럼 전통의 미와 철학을 담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내달 11~13일

학생부종합전형 전문상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11~13일까지 3일간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열람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전문상담'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은 학생부 중심의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희망 대학과 학과에 대한 1:1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현직 입학사정관을 비롯해 도내 대입지원단 팀장급 교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1명이 상담진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196명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는 오는 25일부터 전북진로진학 누리집(<https://www.jbe.go.kr/jinro>)에 접속,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배너를 클릭 후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5~26일 정읍서

당뇨학생 집중관리 캠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5~26일 정읍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하는 '2025년 당뇨학생 집중관리 캠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소아청소년기의 당뇨병 자가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등 당뇨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또래 친구들이 함께 소통·공감·교류하면서 자신감 함성은 물론, 일상생활 속 당뇨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전망이다. 캠프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생활습관 교육, 개발상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면서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 및 학생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갑질 예방교육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3일 오후 2시 JBNU 인터넷서넌센터 7층 동행홀에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안영진 변호사(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를 초청, '슬기로운 청렴생활 -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갑질에 대한 개념과 사례로 살펴본 공공기관 갑질 가이드라인,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대응 사례, 인사청탁 사례 등을 제시해 전북대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특히 갑질 예방을 위한 세대·직급 간 소통의 중요성과 조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 중심으로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된장의 ‘깊은 맛’ 과학적 비밀 밝히다

전북대 김혜원 대학원생, ‘코쿠미 펩타이드’와 염도 관계 규명

전북대학교 대학원생의 연구가 된장의 ‘깊은맛’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목받고 있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예원 석사과정생(식품영양학과·사진, 지도교수 김미나경민)이 최근 열린 한국식품과학회(KOSFOST) 국제학술대회에서 ‘된장 속 코쿠미(kokumi) 펩타이드의 염도별 감각 기여 분석’ 연구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된장의 깊은 맛을 결정짓는 성분으로 알려진 ‘코쿠미(kokumi) 펩타이드’에 대해 사람이 인지하는 맛의 깊이가 소금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특히 김예원 학생은 전통된장에 다량 함유돼 있는 γ -글루타밀 펩타이드(kokumi peptides) 9종을 대상으로 된장의 일반적인 염도 범위(9%, 12%, 15%)에서 이들 성분의 후각



역치(retronasal threshold)와 감각 기여도(Dose-over-Threshold, DoT)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코쿠미 펩

타이드는 염도가 높을수록 감각 인지도가 떨어졌으나, γ -Glu-Phe(γ -EF)는 예외적으로 높은 염도에서도 뚜렷한 맛 기여를 보였다. 감각 분석 외에도 맛 성분의 화학적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물 속에서 산성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pKa 분석)도 병행했다. 이 실험은 맛 성분이 어떤 조건에서 더 잘 인식되는지, 그리고 코쿠미 펩타이드가 실제 맛으로 느껴지는 데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

다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김예원 학생은 “된장의 맛이 단순히 염도나 발효기간이 아니라, 각 펩타이드의 감각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며 “실험 설계와 반복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값진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준 지도교수님과 실험실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과제 책임자인 김미나경민 교수는 “‘된장처럼 전통 발표식무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맛의 과학적 원인의 정밀 분석이 필수’라며 “전통 된장의 깊은맛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과 작용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향후 된장의 품질 표준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6일까지 13일간 미국 뉴저지주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도내 고교생 78명,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여

전북교육청, 내달 6일까지 미국 뉴저지주에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6일까지 13일간 미국 뉴저지주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고등학생 78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기간 동안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글로벌 기술 및 사고방식을 주제로 워크숍 및 모듈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습 결과를 모으는 유연을 통해 확인하며 비판적 사고력·문화 간 협력·전략적 소통 역량을 기르게 된다.

특히 사전교육 단계부터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출발 전부터 진로와 미래 설계에 대한 고민을 심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유엔 본부 탐방 △프린스턴대학교와 글로벌 대학 강의 참여 △뉴욕 현대미술관·브로드웨이 공연 체험 등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직접 체득한다. 전주제일고 최아련 학생은 “이번 캠프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뉴욕이라는 도시가 품은 다양

성 속에서 진로를 다시 묻고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성일고 문준오 학생은 “다양한 인증과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우고 싶다”며 “캠프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의 역할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광주·전남교육청, 감사협력체계 구축

감사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

호남권 3개 시·도교육청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25일 이틀간 순창 힐랜드에서 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참여하는 ‘호남권 감사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개 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호남권 교육청 간 감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체감사 실무 및 감사보고서 작성 기법 등 감사연구원 감사 특강 △교차 감사 등 시·도교육청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 협의의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업무 담당별 모듈활동을 통해



24~25일 순창 힐랜드에서 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참여하는 ‘호남권 감사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주요 감사사례, 핵심 이슈, 착안 사항, 감사 현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기관 간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흥열 감사관은 “이번 워크숍은 호남권 시·도교육청이 처음으로 한자

리에 모여 감사 현안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사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